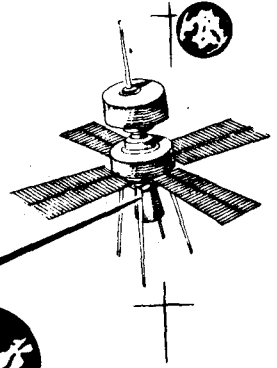


양
계

안테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양계업 이익 위한 하나의 목소리

희망찬 새해를 맞아 양계인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서울올림픽의 성공과 민주화의 첫고동이 힘차게 울렸던 지난해 많은 육구의 분출 속에서도 양계업계는 꾸준히 성장해 전반기 어려움을 딛고 무난한 한해를 보낸 것이 사실이다.

신년 새해 벽두부터 육계가격이 kg당 1,350원을 웃가하면서 뜻있는 분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최근 육계가 상승은 결코 모든 육계인의 혜택보다는 소수 육계업자의 폭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병아리 입추열기도 대단하다 한다. 곧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같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계란의 수입개방폭 확대, 고가 사료시대 예고, 양계질병의 만연으로 피해속출, 인력난 심화 등, 양계업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양계인들은 계속되는 어려움에 산업의 기로에 서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진데 심려하거나 좌절하기 보다는 양계업계의 주인인 양계인들이 중심이 되어 합심해서 엄청난 파고를 뛰어넘어야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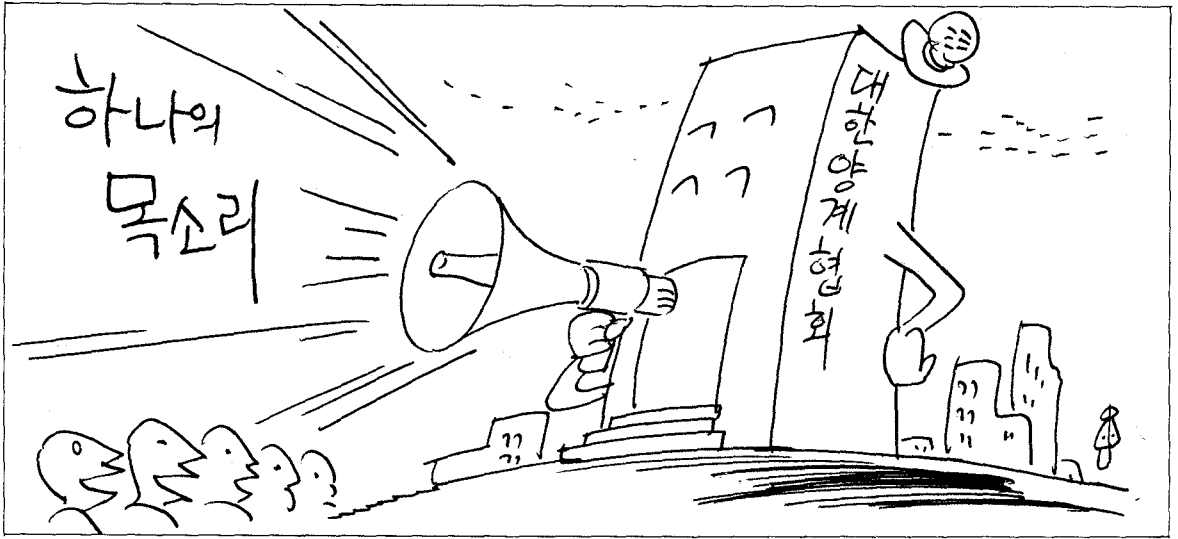
한다. 그래야만 5천불 소득시대에 떳떳하게 모든 국민과 더불어 선진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양계업이 70년대 축산업에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양계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양계인을 중심으로 양계인끼리 뭉쳐서 오늘을 걱정하며 내일을 설계하고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외적인 수입개방 압력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수산물, 야채, 과일 등의 계속적인 견제를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욕구도 점차 고급의 상품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양계산업이 과거의 투기사업도 아니며 아무나 손쉽게 하던 시대는 지났다. 산물가격 또한 수요의 지속적인 창출에 의해 형성될 것이고 일시적이나마 시세가 폭등하면 개방된 수입창구에 의해 무차별하게 외국제품이 자리를 차지해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물결은 양계인 아닌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양계인들이 조직의 힘으로 뭉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감시자로서 양계인 조직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구심점으로 양계인은 협회를 중심으로 힘로도 개척해 나



가야 한다.

기사년 새해는 우리 양계인에게는 산업의 도약을 위한 첫 해가 됨을 인식하고 상업농시대에 생산·유통·소비를 양계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

양계업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2천년대 양계산업은 튼튼한 반석 위에서 지속적인 안정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해를 맞으면서 불러서 모이를 같이 먹는 봉우(朋友)의 정을 소유하고 있는 닭의 속성처럼 양계인 동업자는 한곳으로 모여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을 외쳐대자.

비농민 대자본 축산업 진출 규제

국회 농수산위원 발의로 축산법이 개정될 것 같다.

개정법률안은 축산농가 육성과 소득원 확보를 규모별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위해 비농민 대자본의

축산업 진출을 규제하고 국민소득 6천불 시대에 적합한 중산층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축종별로 사육상한선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의 수입개방시대를 앞두고 중소기업 양축농가에 대한 낭비적이고 생산저해적인 정부규제를 철폐해 개인적 창의와 범위를 넓혀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국내의 축산물 가격차를 축소하고 축산업 발전을 기한다는 이유에서 법을 개정하려 한다.

이를 위해 개정법률안은 △축산업은 축산농가의 고유업종으로 비농민 대자본의 축산업 경영을 금지하고 가칭 축산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토록 하며 △국민의 주요 식품으로의 축산물의 중요성에 비추어 독과점 방지 및 소비자·중소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정하며 △중소등록 양축가에 대한 비생산적인 정부규제 철폐로 개인적 창의성 범위를 넓혀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물론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절차에 의해 개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고밀도사육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양계산업은 타축산업에 비해서 연중무휴로 사료급여, 생산물 수거·

판매 등 고질적인 어려움으로 기계화가 시급하고 질병의 상재화는 사육의욕을 점차 저하시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의욕있고 능력있는 젊은 엘리트 양계인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없어야겠다.

양계업계에서는 재벌급 비축산 대기업의 양계업진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기존 대군 양계인의(소·돼지에 비해서는 보잘것 없는 숫자이지만) 기득권은 현실대로 인정해주는 쪽에서 법이 운용되기를 희망하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고 항방을 주시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현실에서 현명한 업계 판단이 뒷받침되어 양계업이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겠다.



서초동 축산회관 시대 개막

축산인들의 여망이 결집되어 서초구 서초동 1516-5에 축산회관 신사옥이 건립되었다.

지난해 12월26일 준공해 새로 완공된 축산회관은 대지 238평(786.8㎡)에 연건평 679.18평(2,244.54㎡)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에 엘리베이터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모두 13억여원 공사비가 소요되었고 1월중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하실은 회의실로 1층은 전시장 또는 사무실로 이용하며 2~3층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4층은 낙농육우협회가, 5층 전층은 양계협회가 사용하게 된다.

각 생산자 단체는 지난해 말 모두 입주를 마치고 새해부터는 새청사에서 업무에 들어갔다.

양계협회는 지난 1972년부터 축산인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했던 남대문로 5가 구사옥에서 부화협회, 가금협회, 감별협회 등이 통폐합되어 일관성 있는 양계업으로 양적·질적성장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2천년대 안정적 발전의 새 장을 열 터전에 모든 양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막중한 책임의식을 통감한다. 전국 모든 양계인의 관심과 참여속에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될 것을 기원한다.

이제 양계업이 전환기를 맞아 소비자 욕구에 맞는 상품성, 높은 양계산물 생산을 위해 진력해야 하며, 이제까지 생산성 증대에 기울인 노력과 자금을 소비 창출을 위해 홍보활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양계인 자신에 의한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양계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업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해 새청사에서 양계업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자. 모든 양계인은 협회를 중심으로 힘차게 전진하자. **양계**